

전북교육단체연대회의, 제1회 정책집담회 성료

김승환 교육감 3기 교육 정책방향의 이해와 공유 주제

전북교육단체연대회의는 지난 19일 전주시 울티학교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3기 교육 정책 방향의 이해와 공유' 주제로 첫 정책집담회를 가졌다.

집담회에는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김승환 교육감의 3기 교육정책에 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집담회는 차상철 전북도교육청 정책지원관과 김 교육감 3기 선거공약 주제발표, 지정토론, 자유토론, 종합토론 순으로 2시간 동안 진행됐다.

차 지원관은 주제발표에서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3기 선거공약의 5대 비전, 10대 정책, 47개 실천과제의 핵심은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전북 교육 만들거다"며 "모두가 함께 행복한 전북 교육을 만들기 위해 학부모·학생·교직원·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상옥 울티학교 교장은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해야 공감도, 합리적 대안제시도 가능하기에 이 자리를 마련하였다" 말했다.

천호성 울티학교 교육자문위원회 공동대표(전주 교대 교수)는 "교육은 개인만의 이익을 위한 사유재(私有在)가 아닌 모든 사회구성원을 위한 공공재(公共財)이다"며 지원 약속은 신중하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전북교육단체연대회의는 19일 전주시 울티학교에서 학부모가 바라본 김승환 전북도 교육감 3기 교육정책에 관한 열띤 토론의 장(場)이 열렸다.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선 전북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장은 "현재 교육부와 전북도 교육청 가장 관심있게 추진하고 있는 '교육자치 활성화'에 대한 열띤 토론의 장(場)였다"며, "집담회를 통해 학부모·교직원 등 교육 관계자들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였다"고 말했다. 전북교육단체연대회의는 전북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와 공유, 합리적 대안 제시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집담회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출신 강경인씨, 교육부 국비유학생 선발

전북대학교 졸업생이 교육부 국비국제교육원이 주관하는 2019년도 국비유학생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발돼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주인공은 전북대 기계설계공학부(나노바이오 기계시스템공학전공)를 졸업한 강경인(29)씨. 강씨는 올해 전국에서 선발된 6명의 국비유학생에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혁신성장동력 연구 산업기반 분야 장학생으로 선발된 강 씨는 올 9월부터 미국 카네기멜런대학교 바이오메디컬공학 석사 과정에 입학해 2년 동안 공부를 할 예정이다. 이번 선정으로 강 씨에게는 4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강씨는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 유학을 가는 데 있어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바이오 3D 프린팅 분야를 연구해 환자에게 행복을 전달해 주고, 대학과 국가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은성 기자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로타리클럽, 우수대학생 장학금 수여

국제로타리 3670지구 서전주 로타리클럽(회장 이종삼)은 우리 사회를 든든하게 짊어지고 나아갈 건실한 미래의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20일 정기모임 석상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된 대학생 6명(클럽장학생 3명, 관명장학생 3명)에게 총64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하며 격려했다. 이종삼 회장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가운데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서주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있는만큼 이 장학금이 학생들이 이 보다 학업에 전념하는데 있어 작은 도움이 되고 밑바탕이 되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대 의료봉사단, 케냐 찾아 사랑의 인술 실천

전북대학교 의료봉사단이 의료 손길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을 찾아 사랑의 인술을 실천해 훈훈함을 안겨주고 있다. 전북대 의대 김찬영 교수(외과학)를 단장으로 황홍필·윤현조·이 식·정태오·박승용·안정웅·오효정 교수와 위찬우 산부인과 원장(자원봉사자), 의대 학생, 그리고 자원봉사자들은 2주간의 일정으로 아프리카 케냐를 찾아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들은 올해로 르완다와 콩고를 포함하여 5년째 아프리카를 찾고 있다. 봉사단은 케냐의 한 병원에서 최초로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류 수술을 집도하고 교육하는 한편, 진료 봉사 중 밤속에 사산된 아이를 발견해 생명을 구하는 귀한 활동을 했다.

봉사단장인 김찬영 교수는 "의료 혜택이 열악한 케냐를 찾아 현지 의료진 및 주민들과 작은 나눔을 실천할 수 있어 오히려 얻고 돌아온 것이 많다"며 "전북대학교와 전북대학교교병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외봉사에서 나서 의료 소외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무주 솔로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 태권도원 방문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이하 재단)은 20일, 지역 사회 공헌활동의 일환으로 무주 솔로몬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을 태권도원으로 초청했다. 이날 30여 명의 어린이들은 태권도복을 입고 발차기 등의 태권도 기본 자세 수련을 비롯해, 태권도원 상설공연 관람과 각종 태권도 체험 프로그램 참여, 박물관 견학 등을 했다. 태권도원을 찾은 솔로몬지역아동센터 송희진 센터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이 우리 아동센터를 초청해주어 고맙다"라며 "오늘 태권도 수련과 체험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한층 성장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어 너무 기쁘다"고 재단에 고마움을 표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주학부모기자단, 자녀가 함께 나무도마 만들기 체험 실시

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근)은 여름방학을 맞아 지난 19일 자연경관이 아름다운 진안 계곡에서 관내 전주학부모기자단과 자녀들과 함께하는 나무도마 만들기 체험활동을 실시하였다. 무더위에 지친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도심에서 벗어나 맑은 공기와 푸른 숲이 우거진 자연 속에서 가족의 행복을 위한 나무도마를 만들고 물놀이도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 여름방학 동안의 행복한 추억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이다. 자녀들의 고사리 손놀림에 거칠었던 나무 결이 바이올린 모양의 예쁜 도마로 완성되자 웃음 꽃이 만발했으며 40여명의 학부모와 자녀들은 각자 준비해 온 점심을 함께 나눠먹으며 자녀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도 교환하는 등 자연 속에서 힐링의 시간을 갖았다. /정은성 기자



용진읍 새마을부녀연합회, 사랑의 배추 1500여 포기 심어

원주군 용진읍 주민들이 사랑의 벼 재배에 이어 사랑의 배추를 재배된다. 20일 용진읍 새마을부녀연합회(회장 이순임)는 신지리 일원 700여평에 배추모 1500여 포기를 식재해 연말 소외계층 등에게 감장나눔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현재 용진읍에서는 11년째 '얼굴없는 천사'가 사랑의 쌀을 전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 용진읍 이장협의회(회장 정명석)가 유희지를 개발해 농사 재능기부 일환으로 '사랑의 벼 재배' 사업을 하고 있다.

용진읍 새마을부녀연합회는 "그동안 용진읍에서 이어지고 있는 다양한 지역주민들의 나눔봉사 행사를 보며 부녀연합회 주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고민하다 사랑의 배추를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www.jimaeil.com 2019년 11월 25일 (월) 224호 (서노출분)
 등록번호 전북 가00016 (우)960-912 전주시 영신구 기린대로 222-4호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010-9845-4113	중앙지사 010-9888-6874	남원지사 652-3896	고창지사 563-698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55	김제지사 547-8855	임실지사 010-9842-2725
서신지사 272-9417	순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8855	진안지사 433-3084
요지지사 010-9845-9355	팔복지사 253-6984	남원지사 652-3896	정읍지사 538-3787
	군산지사 010-6789-0208	순창지사 652-0444	장수지사 010-3882-8157
	익산지사 659-93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